

보도설명자료

('18. 10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親與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% 차지

('18.10.15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중 43%를 친여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에 지급,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감사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미니태양광 사업은 배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임
 - * 총 사업비 구성비율 : 국비 25%, 지자체 50%, 국민 자부담(설치희망자) 25%
- ☐ 또한,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이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보급 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임
 - 지자체가 특정 협동조합에 몰량이나 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업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실적 편차 발생 가능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 장 (044-203-5240)
강수진 주무관 (044-203-5377)